

포천시 발전과 故郷을 그리는 마음으로

재경포천시민회 제26차 정기총회 및 시민의 밤 행사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각모)는 12월5일 오후7시 서울 중구 코리어나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 및 시민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재경포천시민회 이각모 회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포천시 발전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더욱 뜻 깊다"며 "2009년도 만사형통과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동 전 총리는 "포천이라는 땅이 이어준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고향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새기면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며 "미국월가의 금융위기로 힘든 국가경제지만 IMF도 극복했듯이 포천이라는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우 국회의원은 "날씨는 춥지만 여러 고향선배님을 뵈니가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진다"며 "오늘 받은 축하패는 열심히 일하



재경포천시민회는 12월5일 오후7시 서울 중구 코리어나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 및 시민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리는 채찍질로 알고 포천당원이라는 마음으로 선배들과 함께 포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숙 국회의원은 "그동안 어르신들과 선배님들께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며 "뜻 깊은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치인으로 당직을 떠나 포천발전을 위해서라면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고향 발전

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다"며 "조심을 잃지 않고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80여 공직자와 더불어 2009년도는 지역경제활성화, 복지사회구현, 교통망확충, 문화예술 관광도시 실현, 농업경쟁력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치인으로 당직을 떠나 포천발전을 위해서라면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중호 포천시의회 의장은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

며 국정은 바뀔 수 있어도 고향은 바뀔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포천인이라는 자긍심으로 의회와 16만 시민이 지혜를 모아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고향 선후배모임인 재경포천시민회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동 전 총리, 고조흥 전 국회의원, 김영우 국회의원, 박선숙 국회의원, 서장원 포천시장, 이중호 포천시의회 의장, 이강립 의원, 김영자 의원, 포천시 각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비롯한 재경포천시민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경포천시민회는 포천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포천시 발전에 노력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 축하패를 올려 선출된 김영우 국회의원, 박선숙 국회의원, 서장원 포천시장, 이중호 포천시의회 의장, 송영필 육군준장에게 전달했다.

또 김지민 이사와 이보용 포천신문 자문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경성 부회장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모범청소년에게 장학금 100만원 전달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 15년째 장학금 지급

포천시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조도행)는 11월28일 모범청소년 10명을 선정,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상반기에도 모범청소년 10명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는 위원회는 회원 22명이 자비로 장학금을 마련, 건전 청소년 육성 위한 장학금을 15년째 지급하면서 그 맥을 잇고 있다.

장학금을 지원대상은 가산 관내 초·중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모범청소년들이다.

조도행 위원장은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학업에 열중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5



포천시 가산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11월28일 모범청소년 10명을 선정, 총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년 전부터 매년 50만원을 청년회에 지원해 청소년 보호차량을 운영하는 등 지역파수꾼으로 가

산 청소년들의 등·하교 길을 돕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존경받는 노인위상 정립을 목표로

포천노인대학 제27기 70명 수료식 가져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부설 제27기 포천노인대학 수료식이 11월28일 포천동 다목적복지회관 2층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부설 제27기 포천노인대학(학장 신석산) 수료식이 11월28일 포천동 다목적복지회관 2층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금중 포천시 노인회장을 비롯해 서장원 포천시장, 이중호 포천시의회 의장, 황일현 농업시지부장과 기관단체장,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노인대학은 존경받는 노인 위상의 정립이라는 학교경영 목표 아래 건강한 생활, 부지런한 생활, 책 읽는 보람, 즐거운 생활 등의 실천지침을 기본 교육으로 운영돼 왔다.

이날 수료식은 제27기 수료생 70명(남 22명, 여 48명)이 수료했으며 그동안 포천노인대학은 이날 수료생을 포함해 모두 1천185명을 배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월빙

부사의(不思意)

덕목(德目)과 안목(眼目)

덕목(德目)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안목(眼目)이라는 말도 있다. 덕목이라고 할 때에 목(目)은 목차(目次) 같은 것에서 보듯이 하나의 아이템(item)을 말하는 것이고 안목이라고 할 때에 목(目)은 눈높이(eye level)를 말하는 것이다. 정도(degree)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덕(德)은 근로(勤勞)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안목(眼目)은 스타디(study)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공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스타디하고 연구(研究)해야 나름대로 자신의 안목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알지 못하면 눈높이에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意味)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안목과 덕목은 착하고 선한 심성의 산물

말이다. 그래서 공부해야 하고 설명(說明)을 들어야 한다. 외국 여행을 가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땠는가? 낯선 나라 낯선 문물(文物)이 한눈에 들어오면?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아! 공부 좀 하고 올 걸..." 하고 후회도 했을 것이다. 알고 보면 그만큼 재미도 있었을 테고 얻는 것도 많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평소 공부하고 안목을 높여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공부한다는 것은 지식(知識)을 넓혀 가는 것이다. 연구한다는 것은 지식체계(知識體系)를 쌓아 나가는 것이다. 축적(蓄積)된 지식체계가 모든 것을 말해줄 때 문에 공부하는 것이다. 대화(對話)를 하는 것도, 논쟁(論爭)을 벌이는 것도, 상대를 설득(說得)하는 것도 모두 축적된 지식체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문화(文學)를 이야기하고 역사(歷史)를 이야기하고 예술(藝術)과 철학(哲學)을 이야기 할 때도 축적된 지식체계가 받쳐줘야 빛나는 것이다.

공부는 책(book)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work)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책을 통한 공부가 왜(why)에 대

한 공부라면 일을 통한 공부는 하우 투(how to)에 대한 공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목을 높이려면 하우 투(方法)보다 와이(原因)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 물론 하우 투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한다. 상호보완(相互補充)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우 투에 대한 공부가 방법(method)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와이에 대한 공부는 생각(thinking)을 키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thinking power)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안목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덕(德)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덕은 베푸는 것이다. 그것도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조건을 달면 그것은 이미 덕이 아니다. 거레일 뿐이다. 덕은 도와주는 것이다. 협조(協助)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베풀면 그들이 도와준다. 협조한다. 그들이 도와주고 협조할 때 빛나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덕은 선(善)과 통하는 것이다. 덕을 베푸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착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란 말이 소중한 이유이다.

안목과 덕목은 노력(努力)의 산물이다. 근로(勤勞)의 산물이다. 그리고 심성(心性)의 산물이다. 착하고 선한 심성의 산물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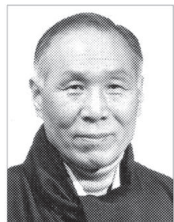
오소리티(authority)를 향해 매진할 때 높아지는 것이고 권위(權威)를 지킬 때 빛나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지식체계를 업그레이드(up grade)시키고 업데이트(up date)해야 만이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남이 잠달 때 발을 깊이 갈아야 하는 이유이고 밤새워 가며 바둑돌을 굴러야 하는 이유이다.

덕목의 사발

점은 근로(勤勞)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야 덕(德)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덕은 베푸는 것이다. 그것도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다. 조건을 달면 그것은 이미 덕이 아니다. 거레일 뿐이다. 덕은 도와주는 것이다. 협조(協助)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베풀면 그들이 도와준다. 협조한다. 그들이 도와주고 협조할 때 빛나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덕은 선(善)과 통하는 것이다. 덕을 베푸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착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란 말이 소중한 이유이다.

안목과 덕목은 노력(努力)의 산물이다. 근로(勤勞)의 산물이다. 그리고 심성(心性)의 산물이다. 착하고 선한 심성의 산물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이규임

안목상제학의학영양학

詩

문고 싶은말

천년을 살 것처럼
오르고 또 오름산
조물주의 신비스러움에
감탄하고 또 감탄한다.
대진대 CEO와 함께 한 시간들
청정해역의 자연스런 효소와
철썩 철썩의 물산더미가 들려온다.
순간적으로 모래 위에
떨어져 쓴 편지
사랑하는 자은아 ... 미안하다.
설악이 어대고

금강이 어데나가 의미가 없다.
망망대해에
마음속 먹구름이 펼쳐버려려 몸부림쳐 보지만
깊숙한 곳 자리한 한숨의 꽃은...
숫구쳐 오르는 서러움은 무슨 의미일까?
자이로움보단 정도만을 고집했음에
통곡이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공간 내 생애 전부를 내 분신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련다.
청간정 콘도에서



박혜자
주부영어지침단장



포천시 상록회 송년의 밤

사단법인 한국상록회는

구한말 황성신문을 창간하여 민족의 정의의 주권을 옹호하였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학교를 세워 후세교육에 전념하였으며 겨레의 꽃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혼을 일깨워준 남궁억 선생의 애국정신과 대표적인 민족주의 문화인 '심훈 선생의 상록수'의 영향을 받아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되고, 독립사상을 지니게 된 춘천고보 학생들이 일제의 악랄한 식민정책과 탄압정책에 대하여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1937년에 '상록회'를 조직하여 우리말 우리글 사랑운동 전개,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는 연설회 개최, 청년학도의 귀농 운동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계획하는 토론회 개최, 우리의 꽃 무궁화 심기 운동 등,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육고를 치른 그 송고한 상록수 정신을 바탕으로 1970년 11월에 전국 규모의 상록회를 창설하고 38년 동안 한결 같이 인간의 진솔한 삶을 바탕으로 봉사과 헌신에 뿌리 내려온 순수한 우리나라의 봉사단체이다.



(사) 포천시 상록회 제 2차 월례회의
일시: 2008.10.16 (목) 오후 7시 장소: 포천신문 대회의실

송년의 밤 개최 안내

- ▶ 일시 : 2008년 12월 18일(목) 오후 6시
- ▶ 장소 : 늘봄 컨벤션 웨딩뷔페(031)543-2008
- ▶ 대상 : 포천시상록회 임원 및 회원



사단법인 한국상록회 경기도 포천시 상록회
회원가입문의: ☎ 031-542-1506~7(사무국장 김영복, 010-7588-7272)